

예수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예수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제 이름은 돈 에버츠입니다. 기독교인이지요. 저는 이 소책자를 통해 예수 믿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닐뿐더러, 인생을 실제로 뒤바꾸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찌면 이런 주장이 그다지 새롭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틈만 나면 말해 온 것이니까요. 미식축구 경기장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있으시지요? 성경 구절이 적힌 포스터를 들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거기에 적힌 구절은 십중팔구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축복하는 구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장 16절, 개역개정)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꽤 커다란 주장입니다. 사실 포스터에 17절과 18절이 적혀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어지는 구절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

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
라”(요한복음 3장 17-18절, 개역개정)

어떻습니까? 미식축구장 여기저기에서 흔들고 있거
에는 상당히 깊은 메시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놀라운 소식입니다!) 그가 우리를 심판에
서 구원해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지
요.(더욱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예
수님을 믿음으로써 심판에서 건져져 구원받게 된 것
입니다.(자, 이쯤 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
인지 궁금해하지요!)

그럼,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세대를
거듭하며 궁금해했던 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
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질문은 기독교에 관한 다른 중요한(그리고 때로 뜨거운 논쟁거리인) 주제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주제들입니다. 성경은 참인가? 기독교 교회는 타락했는가?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것인가? 이러한 주제들은 모두 중요한 물음들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중요한 질문을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라 불리는 한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의 사후에 그의 정신과 운동을 계승하는(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제자들을 남겨놓았으며, 이후 그들이 세상을 뒤 흔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역사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는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 세부 사항들을 믿는 일은 예수님 그분을 믿는 일과

는 다릅니다.

예수님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사명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삶과 정체성, 가르침과 사명을 통째로 믿는다는 것은 자못 켄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의 핵심에는 평범한 초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당신은 그분의 초대를 얼마나 제대로 믿고 있나요?

명제적 진술을 믿는 일은 간단하지요. “봄비는 풀이 자라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것이 바로 명제적 진술입니다. 이런 진술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레 이렇게 되물으면 됩니다. “당신은 봄비가 풀이 자라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습니까?”라고요. 위의 명제적 진술을 믿을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비의 성질,

비가 잔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명제적 진술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하지만 평범한 초대를 믿는 일은 어떤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녁에 오셔서 우리 함께 식사해요”라고 말한다면, 이런 질문에 대해 “당신은 저녁에 우리가 와서 함께 식사할 거라고 믿으세요?”라고 되물으면 될 일일까요?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요. 사실상 이상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의 진실성(또는 신빙성)을 파악하려면 조금 더 조사하고 더 많은 질문을 해야 하지요. 정확히 누가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것인가? 나는 그들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저녁 식사 메뉴로 무엇을 제공하는가? 다른 사람이 그 집에서 식사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때의 경험은 어땠는가?

초대의 신빙성은 결국 초대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일은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진술을 믿는 것을 넘어

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믿음이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말씀과 행동을 하셨으며, 당신을 어디로 초대하시는지 탐구하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단순히 지적인 활동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지요. 예를 들어, 다리를 가리키면서 “저 다리가 당신을 지탱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변수(체중, 다리의 구조 등)를 생각해보고 이론적으로 다리가 여러분의 체중을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지적인 활동이지요. 다리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안전한 장소에서 그저 생각만 해보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지적인 활동만

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요한이 “믿다”(피스테오)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은 단지 지적인 동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말하고 있죠. 그 헬라어 원어는 그저 우리 마음 상태에 관한 단어가 아닙니다. 삶에 관한 단어입니다.

피스테오는 풍부한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진정한 신뢰를 내포하는 단어지요. 사실, 이 풍부한 단어의 명사형(피스티스)은 일반적으로 신뢰로 번역됩니다. 솔직히 그 다리가 내 체중을 지탱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려면 다리 위에 직접 발을 디어 봐야 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믿음은 단지 지적인 동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뢰를 의미하지요. 신뢰는 지성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음만이 아닌 삶 전체의 문제입니다. 멀찍이 안전한 곳에 자리 잡고 앉아서 말로만 신뢰한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

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신뢰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모습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신뢰는 전부를 내어 맡기는 것이고, 신뢰는 아름다운 것이며, 신뢰는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1 신뢰는 전부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권유할 때 특정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흥미롭고 의미 있는 단어이지요. 그 단어는 회개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닌 일상적인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상점을 향해 남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북쪽에 있는 다른 상점으로 가자고 권유했다면 “회개”하고 함께 북쪽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신뢰하라고 사람들을 부르실 때, 우선 그들의 인생행로를 회개하고 돌이켜 자신을 따르라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든, 선택된 권위자를 신뢰하든, 과학적 방법을 신뢰하든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다른 것들보다 더 신뢰하며 살아가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셨기에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믿으라고 초대하셨고, 그 신뢰의 대상을 예수님께로 옮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와 신뢰를 연결함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다른 것들에 더해서가 아니라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단번에 분명히 하셨습니다. 신뢰는 전부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은 두 사람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생각해 볼까요? 이 두 형제는 어부였지요. 어느 날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가족용 배를 타고 물속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을 따라 걸어가시다 그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게로 와 나를 따르라며 초대하셨지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초대하신 분을 신뢰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신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전부를 내어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마가복음 1장

18절, 개역개정)

베드로와 안드레의 신뢰는 전부를 내어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이 초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때, 그는 사람들에게 그저 지적으로 믿으라고 권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개하고 믿게 함으로써 그들의 신뢰를 예수님께로 옮긴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사도행전 3장 19절, 개역개정)

베드로는 신뢰가 전부를 내어 맡기는 일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지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신뢰가 곧 “새롭게 되

는 날”이라고 빗대어 말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2 신뢰는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름다운 경험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바로 그 미식축구장 포스터의 단골 구절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장 16절, 개역개정)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니, 예수님과 그의 교회가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부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숭고한 경험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표현은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지요.

베드로와 다른 초기 기독교인들이 죄를 용서받는 이 아름다운 경험에 대해 얼마나 감동적인 방식으로 말하고 썼는지 살펴봅시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사도행전 10장 43절, 개역개정)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사도행전 13장 38절, 개역개정)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골로새서 1장 13-14절)

신뢰는 아름답습니다. 여러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예

수님을 신뢰한 경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때로는 축구 경기장에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팻말을 들기도 합니다!

신뢰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이고 냉혹한 현실을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는 진정성 있는 인간 경험인 것입니다.

#3 신뢰는 진정성이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은 관계적인 인간 경험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로봇을 초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자신을 따르라고 초대하신 것이지요.

베드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남은 생애 동안 매 순간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베

드로는 예수님을 신뢰한 인간이었지요. 그의 신뢰가 관계속에서 도래했고 진정성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관계적이고 진정성 있는 신뢰는 정확히 어떤 모습일까요?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을 신뢰했지만 두려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종종 예수님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솔직하게 질문하기를 꺼리지 않았어요. 한 번은 예수님에게 노골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공개적으로 책망했고요, 다른 한 번은 예수님과 아는 사이라는 것조차 부인하며 거짓말을 했지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관계 맺은 이러한 방식들을 볼 때,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관계를 맺은 진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의 자격이 박탈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교회 전체를 세우신 ‘반석’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부주의

함이나 솔직한 질문은 그가 더 이상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진정한 신뢰의 모델이 되었으며, 그의 글은 여러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이 완벽해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신뢰의 관계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들 중 리더격이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보잘것없고 작은 믿음이었다고요. 그들은 이 사실을 예수님께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더 큰 믿음을 요청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누가복음 17장 5절, 개역개정)

예수님이 눈을 부릅뜨고 이 지도자들을 쫓아내셨나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 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정말 작고 볼품없는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씨앗이지요. 신뢰는 두드러진 성과를 내느냐 마느냐 하는 것 따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신뢰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지요. 예수님께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진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질문과 의심,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요. 그들은 여전히 실수를 저지르고 또 용서를 구합니다. 신뢰는 완전무결해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는 진정한 성 있는 관계를 맺어가기 위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그분께 내 삶의 전부를 내어 맡기겠다는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정성만큼 아

름다운 것이지요.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이 아름답고, 진정성 있으며, 전부를 내어 맡기는 온전한 신뢰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신뢰로의 여정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온전한 신뢰의 자리에 도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 두 가지 비유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신뢰로 가는 여정의 첫 번째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마태복음 13장 44절, 개역개정)

예수님이 그린 그림이 보이시나요? 한 사람이 그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며 걷던 중 우연히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의 일상적인 활동이 그를 보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가 발견한 보물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에 겨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았어요, 그 밭과 보물을 샀지요. 보물을 보았으니, 그러는게 당연하지요. 그는 보물을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에서 다른 모든 것을 팔고 보물에 전부를 거는 ‘회개’를 합니다.

이것은 신뢰를 향한 여정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사람의 여정은 전부를 내어 맡기고(모든 것을 팔고), 의심할 여지 없이 아름다우며(기쁨이 있고), 진정성이(그의 매일 매일의 일상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습니다. 때때로 신뢰로 가는 여정은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던 중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았으나, 우연히 마주친 적도 없고 직접 대면해 본 적도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르치

고 행하셨고,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막상 예수님을 실제로 대면하면, 그는 자신이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에서부터 신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종종 신뢰를 향한 여정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주셨지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마태복음 13장 45-46절)

예수님이 그린 두 번째 그림이 보이시나요? 두 번째 그림도 첫 번째 그림과 비슷합니다. 신뢰에 전부를 내어 맡기고, 아름다우며, 진정성 있는 모습이지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 남자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남자의 여정은 조금 달랐습니

다. 오랜 기간 동안 진주를 찾고, 질문하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여러 진주의 가치를 따져보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지요. 이 남자는 신중한 검색과 무게 측정 끝에 너무나도 값진 진주를 발견했고, 기쁨에 겨워 전부를 걸었습니다.

때때로 신뢰를 향한 여정은 신중하게 검색하고, 많은 질문을 하고, 다양한 종교와 전통, 영적인 가르침들 탐구하고 따져보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신중한 과정의 어딘가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가르치고 행하신 일,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자신이 그 무엇보다도 그분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내면에서부터 신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듯이, 신뢰는 언제나 전부를 내어 맡기는 것이며, 아름

답고, 진실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뢰로 가는 길은 사람마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신뢰를 향한 나의 여정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저는 신중한 진주 상인 같기도, 들판을 방황하는 사람과 비슷하기도 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기 전부터 저는 항상 호기심과 탐구심이 많았고, 다소 괴짜 같은 면이 많았습니다.(모든 초등학교 3학년이 간디의 자서전과 비교하기 위해 간디의 전기 를 여러 권 읽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진주 상인의 기질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는 거의 방황하고 있었어요. 사실 2학년 여름에 절친인 토드가 캐나다에서 열리는 기독교 캠프에 초대했을 때만 해도 저

는 그저 귀여운 여자애들을 만날 기회로만 생각했거든요. 토드도 마찬가지였죠.(인정하기 부끄럽지만, 토드와 저는 캠프에서 각각 몇 명의 여자아이를 만날 지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독교 캠프인 줄은 알았지만, 사실 그다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시다. 스피드 보트도 있고 침대들도 많다고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이유로 간 거였습니다!

하지만 토드나 저는 그 주에 어떤 여자아이들과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우리 둘은 각자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예수님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성경 이야기도 많이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캐나다에서 열린 캠프에서 오렌지에 관한 촌극을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르치고 행하셨는지,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직접 대면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소녀의 마음을 다룬 촌극이었어요. 저는 그 촌극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저희는 수백 명이 바닥에 앉아 무대 위의 어린 배우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인공 소녀는 완벽하고 생기 넘치는 오렌지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오렌지는 그녀의 마음을 상징했죠. 그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 친구, 남자친구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누구나 겪게 마련인 일이지요. 이를 물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배우들은 그녀의 오렌지에 긴 못을 박았습니다. 그녀 마음의 상처를 표현한 것이지요.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그녀는 무대 중앙에 서서 상처 입은 자신의 마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한때 완벽했던 오렌지는 이제 못으로 가득 차 있었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자(저는 그녀의 눈에서 자기혐오라는 감정을 알아차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도 제법 잘 알고 있었던 감정이었거든요), 그녀는 자기 마음을 때리기 시작했고, 자신의 마음에 못

을 박았습니다.

무대 위, 그 여배우에게서 저는 제 삶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울기 시작하자 저는 눈물을 삼키느라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단순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슬픈 장면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거지요. 예수님이었습니다.(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망토를 두르고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이 젊은 여성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에 찬 목소리로 그녀의 마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녀를 긍휼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오렌지를 내려다보며 그녀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었지요. 그녀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관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즉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졌다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왕국은 용서와 희망의 장소이자 치유의 장소였습니다.

여인은 오렌지를 내려다보며 이 희망의 메시지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초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단다. 너는 그저 나를 전심으로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

그녀는 분명히 갈등하고 있었고, 이 초대와 씨름하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는 제 눈도 커졌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치유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아왔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무대에서 예수님을 마주하고 서 있을 때, 저 역시

도 사람들로 붐비는 마룻바닥에 앉아 그분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 안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피어난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와 그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제가 수많은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보았던 기쁜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그 소식 말입니다. 그때 갑자기 그 젊은 여인의 오렌지가 온전해졌고, 밝고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 역할을 맡은 그 배우가 무언가 재빠른 손재주로 놀라운 일을 한 것임이 틀림없지요. 오렌지에는 못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새 오렌지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지요. 이 젊은 여인과 예수님 사이의 모든 교류가 아름다웠습니다.

그 신뢰의 경험이 제 눈앞의 무대에서 아름답고 단순하게 그려졌습니다. 어린 소녀는 감격하며 기뻐했고, 예수님도 감격하며 기뻐하셨고, 저는...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저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저 역시 예수님이 제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분이 제게 인생에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분을 더욱 신뢰하라고 초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날 밤 오두막집에서 저는 제 안에 있는 이 신뢰를 하나님께 표현하며 기도했습니다.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에는 화려하거나 종교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예수님을 얼

마나 큰 보물로 주셨는지 이제야 알았다고요. 저는 하나님께 저의 전부를 내어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팔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 진정한 보물이 있었으니깐요. 바로 예수님이었죠.

이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린 후 저는 간단히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불꽃이 터졌습니다. 비유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밖에서 불꽃놀이가 터졌어요!(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해서 꾸며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유치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마침 독립기념일이었고 캐나다에 있었는데 제가 “아멘!”이라고 말한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불꽃놀이를 터뜨렸지요. 정말 멋진 순간이었어요.

신앙이라는 선물

하지만 그 순간이 멋지긴 했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긴 여정의 정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신뢰의 순간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의 영적 호기심, 자라면서 들었던 모든 성경 이야기와 가르침, 10대 초반에 느꼈던 제 자신의 죄성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감각, 인생에서 받은 상처에 대한 정직한 인식, 캐나다로 여행을 떠나기로 한 결심, 오렌지에 관한 촌극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저는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 속 각각의 부분을 지나면서 저는 제 결정과 행동을 치열하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삶은 그러한 시간을 모두 지나, 마침내 지금, 이 순간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아름답고 진정성 있는 신뢰에 전부를 내어 맡기는 순간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뒤늦은 깨달음으로 이 여정을 되돌아보니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시절 저의 안에 있던 호기심을 자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성경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은 제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인생에서 받은 상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캐나다로 인도하셨고 촌극이 있던 날 밤 세심하게 제 눈과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 안에 있는 이 신뢰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제 안에 그 신뢰를 심어주신 것이지요.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저를 신뢰의 여정으로 인도하셨으니까요. 제 자신의 이야기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가능했던 것이지요. 이 깨달음은 밖에서 불꽃놀이가 터졌을 때보다 훨씬 더 멋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강력하고 힘찬 단어로 이

믿음과 신뢰를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신앙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은 저에게 신앙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신앙이 항상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에베소서 2장 8절, 개역개정)

에베소서에서 이 구절로 이어지는 바울의 논리는 제 안에 울림을 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사람이지요. 이것이 바울이 밝히는 나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기쁜

소식의 아름다움을 강조해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미식축구 경기장의 그 단골 멘트가 알려주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싶습니다. 제가 신앙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신앙을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야말로 순수한 은혜였고요, 또 완전한 선물이었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이 선물 앞에 겸손해졌고 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자신만의 신앙 여정을 떠나지요. 그리고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때에야 비로소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고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얼마나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대해 주셨는지를 말입니다.

아직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신앙이라는 선물에 대한 거시적인 그림을 파악하고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최근에 한 기독교인 신학자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아직 기독교인이 되기도 전이었지만, 신앙이라는 선물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종교학과 학생이었습니다. 한 오래된 기독교의 문서를 연구하던 중이었지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였습니다. 비기독교인이었던 그녀는 그 문서에 쓰인 한 구절을 이해하려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칭의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뜻하는 신학 용어입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와 동시에 우리는(은혜를 인하여) 칭의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구절을 깊이 숙고했고, 그 결과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입는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입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팔을 들어 올려서 옷 입는 것처럼 교리를 입었습니다. 제가 직접 입어봤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직접 입어봤어요. 그리고 의자에서 떨어졌어요. 정말 더운 7월의 어느 날 3층 서재에 있었는데... 옷 입을 때처럼 입어보려고 했지요. 그런데 옆드러진 거죠.”(『마음의 습관: 그리스도인 소명으로서의 지적인 삶』, 제임스 S. 사이어).

신앙이라는 선물을 대면하면서 이 종교학과 학생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풍성한 자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라는 선물은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감격할 수 있지요. 직접 체험하고

싶으신가요? 불꽃놀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멋진 일이지요. 조금도 과장이 아닙니다.

신앙을 향한 당신의 여정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 여러분도 자신만의 여정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여정의 놀라운 순간들과 힘겨운 시간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제 여정과 수년 동안 만났던 많은 사람의 여정을 바탕으로 몇 가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1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 고민하고 다양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자연스럽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각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이는 예수의 정체성, 그가 한 일, 그가 가르친 것, 그가 수행한 사명 등 예수의 삶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어떻게 대면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인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는지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들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대면하는 또 다른 방법은 복음서 중 한 권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가르침, 행동, 사명에 대한 고대의 기록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중 하나(또는 몇 가지)에 충분한 시간을 쏟으면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것입니다.

#2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라는 초대가 기독교의 핵심이

지만, 여러분은 신앙의 여정에서 다른 많은 질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인, 교회, 성경 또는 기도에 관한 질문들도 있고, 기독교의 특정한 가르침이나 성경의 특정 구절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역사나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관한 질문도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읽고 들은 내용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 것은 옳기도 하고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인 친구나 가족에게 이러한 질문을 탐구하는 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앙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독교인들이 쓴 책이 많이 있으며, 많은 교회는 질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성경 자체를 탐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충분히 읽다 보면 의심할 여지 없이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예수님을 따르는 데 드는 비용과 유익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앙은 전부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실질적인 대가가 따르지요. 그래서 이에 대해 솔직해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비용을 계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앙은 아름답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희망과 치유가 가득한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에는 숭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지막으로, 신앙은 진정성입니다. 그것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은 신뢰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신앙은 득과 실을 이론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내어 맡기고 용서받는 당신에 관한 것이

지요. 신앙에 대해 개인적으로 성찰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세요. 틀림없이 당신은 여정 떠나는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믿음을 기도로 표현하세요. 화려하거나 종교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신뢰를 표현하세요. 이 땅에서는 불꽃놀이 소리를 듣지 못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누가복음 15장 10절, 개역개정)

돈 에버츠는 나사렛 예수와 그의 제자가 된 모험에 관해 12권 이상의 책을 썼으며 각종 수상 경력에 빛나는 작가입니다. 대학에서 활동하는 사역자이자 안수받은 목사이며 친근한 이웃인 돈은 25년 이상 예수님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루터란아워Lutheran Hour는 '루터교회 또는 루터교 교인들이 마련한 미디어 시간 또는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지난 세기 초 미국 루터교 미주리 의회 평신도들이 설립한 루터란아워는, 세계 6개 대륙의 60여개 국가들에 복음을 전하는 글로벌 단체로 거듭났습니다. 현재 한국루터란아워는 미국 루터란아워와 기독교한국루터회의 후원과 동역으로 후암동에서 범교단적 미디어선교사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루터란아워 뉴스레터 구독 신청할시 혜택!

- 매 절기마다 판매부수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루터란아워 <목상집> 출간 소식 받기
- 후암동 중앙루터교회 본당에서 한달에 한 번씩 무료로 열리고 있는 '정오음악회 클래식 콘서트' 소식 받기
-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강좌 소식 받기
- 다양한 책모임과 이벤트 및 유튜브 콘텐츠 업로드 소식 받기
-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절기에 따른 성경구절 읽고 묵상하기

루터란아워 뉴스레터 구독 & 후원하기

<https://linktr.ee/lutheranhour>

루터란아워 홈페이지에서 소책자를 pdf로 다운받으세요!

korealutheranhour.org/pdf

후원계좌

국민은행 098937-04-006221 [예금주: 한국루터란아워]



루터란이 말하는 예수님 I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루터란이 말하는 예수님 II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요?

〈루터란이 말하는 예수님〉 시리즈는
기독교한국루터회, 광주제자들교회, 대조동교회,
왕십리교회, 중앙교회, 팔복교회의 **인쇄비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기독교한국루터회 info.lck.or.kr
광주제자들교회 gjjjd.lck.or.kr
대조동교회 cafe.daum.net/lckdj
왕십리교회 wslch.lck.or.kr
중앙교회 yes-luther.com
팔복교회 palbokluther.wordpress.com



루터란아위는 미디어를 활용해
교파의 경계를 넘어 그리스도를 모든 이에게 전하고
모든 이가 교회로 서게끔 일하는 평신도 중심의 선교단체입니다.

문의 : info@korealutheranhour.org
Copyright © 2023 by Lutheran Hour Ministries